

# 정보사회의 새로운



우리나라 정보통신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1995년이 이제 저물어갑니다.

전기통신 백여년의 역사가 올해를 고비로 새로운 정보통신의 분수령으로 접어드는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우리는 다시금 미지의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 1년이었습니다.

정보사회와 정보통신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조직의 일원화로 정보통신부가 본격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통한 기본틀로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전기통신관련법들의 재정비가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인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초고속망구축

기획단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기본통신분야의 개방을 위한 NGBT양허안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신산업구조 조정정책이 구체화 되는 등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이와같은 환경의 격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여러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의 특성으로서 불투명성의 심화는 그 어느해보다도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사회적 국가적 중요성과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위치가 재삼 확인되는 등 꾸준하고 착실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의 확산은 가장 소중한 결실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미래에 대한 통찰이나 합의의 모자람으로 해서 목전의 사안들이 필요이상으로 확대 조명되는 등의 우를 범하지 않았나 싶은 국면도 없지 않았음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도래가 명확한 시점에서 아날로그/디지털 논쟁이 되풀이된점이라든가 세계화시대를 맞아 현실안주적인 논의가 지속되었음은 그러한 한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전세계가 새로운 선택이라는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 과장을 겪으며

우리들을 통해서 이룩되는 21세기 정보사회는 정보통신분야의 변혁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이룩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단순한 정보통신 기반구축에 그치는 작업에 머무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때 당협회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최초의 「정보통신윤리강령」을 대외로 공포한 일이라던가, 새시대를 맞아 기존 산업의 틀을 새로이 제시하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CALS」를 제창하여 소기 이상의 확산효과를 거둔 사실은 기록될 만한 일로 여겨집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은 지난 30년동안 치르어 온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모델창출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진입을 위한 새로운 모델과 틀짜기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흉내내기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목표와 방법을 찾아 내야하는 절박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한 해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와같은 환경변화와 함께 심화되는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의 개편과 적절한 사무공간을 마련하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로(Zero) 베이스에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패러다임의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직은 회원제위를 비롯 정부 및 관련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단계에까지 이르진 못하였으나 올해보다 더욱 변화의 물결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 대비하여 협회가 반드시 해야할 고유의 일들을 스스로 찾아 내어 헤쳐나감으로서 업계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하는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모를 맞아 배전의 배려와 지도편달을 기원하면서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신 범 식